



1566년경, 97x91cm, 스웨덴, 스코클로스터스 슬로트

한 무더기의 책으로부터 상상의 불꽃을 튕겨낸 것은 화가의 착안이다. 아르침볼도의 상상은 일찍이 신상 조각가 피디아스가 올림피아의 제우스를 빚어내면서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형용을 보이려고 했음직한 그런 모습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어깨에 날개를 비껴어매고 올림포스의 산정으로 인도했던 신성의 은사가 아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모방의 모방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고대가 혹평했던 그릇된 상상의 팔레트에 자신의 붓을 담금질했을 가능성이 크다.

책으로 빚어낸 예술적 상상력

르네상스 미술론은 예술적 상상력의 자랑스런 복권을 획책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담벼락의 얼룩을 바라보면서 기마전투나 풍경의 파노라마를 상상하라고 조언한 것이 그것이다. 피어오르는 구름이나 사위어가는 젓더미, 진흙수렁에서도 미술의 구성을 견져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상상력이란 이미지의 우연스런 혼돈에서 형태의 자연스런 질서를 구하는 예술적 구성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침볼도의 사서는 책을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자신을 끌어안 듯 그윽한 손길로 책을 보듬었다. 붉은 장정의 두꺼운 책은 오른팔이요, 갈피꽃이는 책장을 살피는 조심스런 손가락이

다. 그의 시선은 정면에서 비껴 있다. 책갈피에 숨은 또하나의 세상을 응시하기 위해서다. 콧등에 걸친 두툼한 안경은 이 시기의 도상에서 갈릴레이의 망원경과 짝을 이뤄 가까운 시선, 혹은 내향의 시선을 암시한다. 그의 몸과 사지, 그리고 행위를 이루는 크고 작은 책들은 단혀 있다. 지식은 항용 기억의 형식으로 갈무리되는 것. 단혀 있는 책들은 관찰자의 시선을 책의 외연으로 이끌기 위한 화가의 전략이기도 하다.

이제 한 권의 책이 펼쳐졌다.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예비하는 현재의 지혜, 그리고 걱정의 바람과 이성의 빛이 더불어 공존하는 사서의 머리는 붉은색의 무거운 표지와 흰색의 가벼운 날장들로 이뤄졌다. 가볍게 흘러서 쓴 글씨체는 머릿속을 스치는 어렵פות 단상들을 서둘러 붙들어 두려는 빠른 손을 증거한다. 머리에 떠오르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재빨리 간략하게 소묘할 것을 권했던 매너리즘 미술론의 성급한 표상과 다르지 않다.

아르침볼도의 상상은 초상과 정물의 두 장르를 자유로이 호환시킨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는 자연과 인위, 우연과 예술, 시학과 회화의 두 영토를 거침없이 넘나든다. 레오나르도의 얼룩이론이 자연의 상서로운 혼돈에서 여의로운 질서를 거두기 위한 예술의 요긴한 숙련과정이라면, 아르침볼도는 형태의 새로운 변신을 작품의 주

책으로 쌓아올린 시각의 바벨탑

아르침볼도의 <도서관 사서>

노성두 | 미술평론가

아르침볼도의 사서는 책을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자신을 끌어안 듯 그윽한 손길로 책을 보듬었다. 붉은 장정의 두꺼운 책은 오른팔이요, 갈피꽃이는 책장을 살피는 조심스런 손가락이다. 사서의 머리는 붉은색의 무거운 표지와 흰색의 가벼운 날장들로 이뤄졌다.

제로 선택한다. 여기서 창조는 목적이 아니라 구실이다. 상상은 신성의 비밀을 엿보는 요결이 아니라 지적 유희의 방편이다. 레오나르도는 담벼락의 얼룩을 응시하는 시선을 흐린다. 시선의 초점을 자연보다 더 먼 곳에 밀어둠으로써 혼돈의 숨은 실체를 꿰뚫어보려는 것이다. 시각과 인식의 가치는 비로소 평등하다. 그러나 아르침볼도는 시선의 초점을 잃는 법이 없다. 다만 가까이 다가서거나 멀리 물러나면서 한 무더기의 책을, 혹은 사서의 엄숙한 표정을 읽을 뿐이다. 그림을 보는 관찰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변신의 기적을 목격한다. 시각의 주체적 가치가 와해한 것이다.

시각적 우주를 뛰어넘는 지적 상상력

르네상스는 자연과 소통하는 도성의 다섯 성문, 곧 오감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 가운데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시각이 감관의 제왕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아르침볼도는 시각의 보편 가치를 신뢰하지 않았다. 르네상스가 시각적 상상력을 통해서 예술의 우주를 창조했다면, 아르침볼도는 지적 상상력을 통해서 시각적 우주의 오류 가능성을 발견한다. 예컨대 레오나르도의 천재는 자연관찰에서 나왔다. 그러나 아르침볼도의 천재는 그로테스크를 낳았다. 어떤 이는 카프리지오라고 부르기도 한다.●